

채소류 공급은 점차 확대, 본격 정부 할인지원으로 체감 물가 안정 기대

- 오이·애호박·청양고추·시금치 출하량 늘어 가격 하락 전망
- 전통시장 할인지원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체감 가격과 차이 발생
- 오늘부터 1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산지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성수품 가격 안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농산물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채소류는 중 여름철 집중호우와 고온으로 가격이 높았던 오이, 애호박, 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류는 9월 들어 기온이 내려가면서 작황이 회복되고, 출하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여 소비자가격이 일시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선행지표인 도매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자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가락시장 반입량(전년 9.상 → 금년 9.상) : 오이 232톤/일 → 276, 애호박 148톤/일 → 145, 청양고추 74톤/일 → 74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로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했던 시금치는 기온 하락 영향으로 경기 포천 등 주산지 출하량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향후 경북 포항 등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는 추석 성수기 공급량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 물량 등 정부 가용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있으며, 일선농협과 산지유통인 등 민간 출하량도 늘리기 위해 출하장려금을 상향 지원*하는 등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 기준(수확비 + 운송비 = 포기당 약 500원) → 상향(기준 + 상장수수료 = 포기당 900~1,000원)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9월 5일(목)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소비자가격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기존(2품목) 배추·무 → 확대(15품목) 배추·무·사과·배·마늘·밤·대추·계란·오이·애호박·청양고추·닭고기·열갈이·열무·부추

** 가격변동(8.하순 → 9월6일) : 무 3,868원/개 → 3,698, 깐마늘 10,299원/kg → 8,894, 사과 27,702원/10개 → 25,878 등

다만, 대형마트에서는 할인 가격이 즉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데 비해 전통시장에서는 할인 대상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농축산물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는 농할상품권 할인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방식으로 실제 구매액 보다 약 3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배 구매할 경우 : (대형마트) 할인 전 27,572원/10개 → 할인 후(표시 및 체감가격) 23,138원(16.1%↓) (전통시장) 판매가격 39,460원/10개 - 현정환급 1만원 = 실구매(체감가격) 29,460원(25.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조사 결과도 전통시장은 할인 가격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채소류를 제외한 과일, 축산물 등 가격이 하락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2.0%) 보다 낮은 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늘(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1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하며, 농축산물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지참하고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액 3만 4천 원 당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담당 부서 (수급총괄)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서기관	김민호 (044-201-2681)
			사무관	김성만 (044-201-2685)